

교수일반분과/경영B(로고스)/03/

언론보도 환경의 변화가 동성애 문화콘텐츠 확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경훈 (경희대학교)

국문초록	4. 동성애 소재 문화콘텐츠의 확산 현황
1. 들어가며	5. 맺으며
2. 인권보도준칙 성소수자 관련 조항	참고문헌
3. 동성애 소재 언론보도 환경의 변화 양상	

국문초록

<인권보도준칙>은 한국기자협회와 국가인권위원회가 2011년 9월 23일 제정하였고, 2014년 12월 16일 이를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인권보도준칙>은 ‘성소수자가 잘못 되었다는 표현’, ‘성소수자를 비하하는 표현’, ‘보도 대상자의 성정체성 언급’, ‘동성애의 질병 가능성 및 에이즈 연관성’ 등에 대해 보도를 지양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 보도준칙의 시행 이후 언론 보도의 환경이 동성애 옹호 성향으로 변화하게 되었고, 이는 다양한 근거 자료를 통해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이 같은 동성애 관련 언론보도 환경의 변화 양상을 파악해보고, 이어서 동성애를 소재로 한 영화와 드라마, 그리고 뮤지컬과 연극에 대한 제작 현황을 조사해보았다. 이를 통해 해마다 제작 빈도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실질적인 관람객의 증가로 이어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공정성과 중립적 보도가 보장되어야 할 언론의 역할이 국가에 의해 통제되어 지고, 동성애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의 형성이 사회 구성원의 인식 변화, 문화콘텐츠 제작 소재의 변화 그리고 이를 확산시키는데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제어 : 동성애, 성소수자, 인권보도준칙, 키워, 문화콘텐츠

1. 들어가며

2014년 3월 26일, 주요 언론사들은 경찰이 마약을 소지하고 집단 투약한 동성애자 10명을 입건했다는 내용의 보도를 내보냈다. 이들을 입건한 종로경찰서는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하면서 “도심 한복판 아파트서 마약파티를 한 동성연애 피의자 10명 검거,” “피의자들은 모두 동성연애자이며 이 중에는 트랜스젠더 2명도 함께 있었다.”¹⁾ 등의 문구를 포함하여 마약 범죄를 저지른 일당이 모두 성소수자임을

명시했다. 이에 주요 언론사들도 경찰의 보도자료를 인용해 동성애자들이 마약범죄를 저질렀음을 지적했다. 그런데,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인 ‘친구사이’는 서울 종로경찰서를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경찰이 동성애자 차별 및 인권침해를 했다는 것이다. ‘친구사이’는 진정서에서 “종로경찰서는 보도자료를 통해 피의자가 마약을 투약한 장소를 이태원 게이클럽이라고 지정하였고 마약사용자들의 성적지향을 공개한 것이 차별”²⁾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종로경찰서가 ‘동성연애’라는 용어를 사용해 동성애를 비하했고, ‘마약파티를 벌인다’라는 자극적인 문구와 함께 검거 당시 사진과 영상을 언론에 제공한 것은 동성애자에 대한 혐오와 편견을 조장한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 게이인권운동단체는 이 같은 진정의 당위성을 <인권보도준칙>에 근거했다. 한국기자협회와 국가인권위원회가 만든 <인권보도준칙>에는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 경우 성적지향이나 성정체성을 밝히지 않는다.”라고 명시돼 있다는 것이다. 즉 종로경찰서와 언론사들이 단순히 ‘마약사범 검거’등으로 일반화하여 표현해도 될 일을 ‘게이클럽’이라는 특정 장소와 ‘피의자가 전원 동성애자’라고 굳이 명시함으로써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혐오를 조장하는 과오를 범했고, 이는 <인권보도준칙>에 위반 된다고 항의한 것이다. 이 같이 성소수자 단체들은 ‘마약’이라는 사회 문제의 심각성을 우선 제고하기 보다는, ‘동성애자’를 명시했다는 그 자체에만 더욱 집중하며 언론사들을 비난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처럼 <인권보도준칙>이 제정된 이후 동성애 관련 보도에 많은 변화가 생기게 되었다. 다수 언론들이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을 쉽사리 보도하지 못하는 현실을 맞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영화나 드라마, 뮤지컬 등 동성애 관련 대중문화 콘텐츠에 대한 언론보도나 평가 성향은 중립적일 수 있을까?, 사회 구성원의 인식 변화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대중문화 평론이 편향적이라면, 이는 관련 소재의 문화 콘텐츠 양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문제제기를 통해 성소수자 관련 언론보도의 환경 변화 이후 동성애 문화콘텐츠가 얼마만큼 증가하게 되었는지 조사해보고 그 연관성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2. 인권보도준칙 성소수자 관련 조항

<인권보도준칙>은 한국기자협회와 국가인권위원회가 2011년 9월 23일 제정하였고, 2014년 12월 16일 이를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언론은 모든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위해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권의 증진을 목표로 삼는다.” “언론은 이를 위해 인권문제를 적극 발굴·보도하여 사회적 의제로 확산시키고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가 정착되도록 여론형성에 앞장선다.” 등의 내용을 담은 <전문>으로 시작된다. ‘성적 소수자’ 인권에 대해 언급한 세부 조항 및 요강 메뉴얼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성적 소수자 관련 조항

제8장 성적 소수자 인권

1)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40408_0012842158

2)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6640>

1. 언론은 성적 소수자에 대해 호기심이나 배척의 시선으로 접근하지 않는다.
 - 가. 성적 소수자를 비하하는 표현이나 진실을 왜곡하는 내용, '성적 취향' 등 잘못된 개념의 용어 사용에 주의한다.
 - 나. 성적 소수자가 잘못되고 타락한 것이라는 뉘앙스를 담지 않는다.
 - 다.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 경우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을 밝히지 않는다.
 - 라. 성적 소수자에 대해 혐오에 가까운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2. 언론은 성적 소수자를 특정 질환이나 사회병리 현상과 연결 짓지 않는다.
 - 가. 성적 소수자의 성 정체성을 정신 질환이나 치료 가능한 질병으로 묘사하는 표현에 주의한다.
 - 나. 에이즈 등 특정 질환이나 성매매, 마약 등 사회병리 현상과 연결 짓지 않는다.

<표1. 인권보도준칙 성소수자 관련 조항>

이렇듯 <인권보도준칙>은 '성소수자를 비하하는 표현,' '보도 대상자의 성정체성 언급,' '동성애의 질병 가능성 및 에이즈 연관성' 등에 대해 보도를 지양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3. 동성애 소재 언론보도 환경의 변화 양상

2018년 7월 14일 서울시청 광장에서 열린 '제19회 서울퀴어문화축제'는 찬반논란을 시작으로 사회적으로 커다란 이슈가 되었다. 퀴어문화축제에 앞서 이를 반대하는 국민들의 '청와대 국민청원'은 20만 명을 넘어섰다. 청원의 내용을 볼 때, 대부분의 반대자들은 '동성애자'들의 축제 자체를 반대한다기 보다는, 지난 여러 해의 진례를 봤을 때 그 축제를 구성하는 콘텐츠들이 너무 외설적이고 특히 청소년의 정서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만큼 선정적인 문구나 복장, 그리고 노골적인 퍼포먼스 때문이라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그러나 정작 언론의 보도 내용은 다수 국민의 의견과 성소수자의 입장을 균형있게 다루기보다,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보도준칙>을 의식한 탓인지 대부분 언론이 축제를 미화하고 긍정적인 면만을 보도하는 편향성을 보였다. 대표적인 언론사들의 보도 내용을 요약해보면, MBC뉴스는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것," JTBC뉴스는 "개인의 성적 정체성 지향을 서로 인정해야 한다," 경향신문은 "이번 퍼레이드에는 성소수자를 지지하고 연대하는 수많은 '당신'들의 얼굴로 가득했다," 등 대부분이 축제를 옹호하고 긍정적인 면만을 부각시키려 애를 썼다.³⁾ 특히 공영방송인 KBS뉴스는 서울퀴어문화축제에 대해 "다양한 삶을 존중하고자 호소한 축제"라고 밝히는가 하면, 10월 25일에 열린 인천퀴어축제에 대해서는 한 발 더 나아가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에 대해 보도하면서, "(축제를 반대하는 집단의 시위 때문에) 70%가 '우울증상'을 보였고, 84%가 '급성스트레스 장애', 66%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예측된다"고 밝히는 등, 우리나라가 사회적 관용도가 낮은 상태이고 다른 나라보다 동성애 반대 인식이 높다는 내용을 지적하면서 성소수자만 옹호하는 편향된 보도를 내보냈다. 또한, 2018년 7월 19일자 크리스천투데이에 따르면 "서울퀴어문화축제의 참가자 수는 '경찰 추산 1만 5천명'인데,

3) <http://www.christiantoday.co.kr/news/314462>

경향신문과 SBS는 각각 ‘주최 측 추산 12만여 명’이라고만 보도해, 소수자 축제의 참가자의 수를 늘려 보도하는 것 같은 아이러니한 현상을 보였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2014년 8월 14일, ‘한국교회언론회’가 동성애와 관련된 언론보도 행태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면서 “<인권보도준칙> 개정 후, 동성애 지지보도가 약 25%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조사는 2010년 1월 1일부터 2014년 7월 31일까지 약 4년 7개월 동안 지상파 방송(KBS, MBC, SBS)과 중앙일간지(경향, 국민, 동아, 문화, 서울, 조선, 중앙, 한겨레, 한국일보)에 보도된 뉴스, 기사, 사설, 문화 소개 등을 대상으로 분석했다고 밝혔는데, 이 기간 동안 동성애에 대한 보도는 총 1,015건이며, ‘동성애 사실보도’가 130건, ‘동성애를 지지하는 보도’가 726건, ‘동성애를 반대하는 보도’가 159건으로 지지보도가 월등히 많았다. 그런데 이런 변화는 2011년 9월 23일 국가인권위원회가 동성애와 연관된 부정적인 보도를 막는 소위 <인권보도준칙>을 발표하면서 더욱 심화되어, 시행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인 2012년 3월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는 동성애지지 보도 비율이 51.75%, 그 이후에는 77.25%로 급격하게 상승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참고로, 이 기간 중 대다수 국민의 ‘동성애 우려’ 입장을 꾸준히 대변한 언론사는 ‘국민일보’로써 이 매체의 동성애 관련 전체 보도 중 96.6%에서 동성애에 대한 진실과 우려를 표명했다. 반면, 같은 기간 가장 많은 ‘동성애 지지’ 보도를 내보낸 언론사는 ‘한겨레’로써 전체 동성애 관련 보도의 96.3%가 동성애를 옹호하는 내용으로 채워졌다. ‘경향신문’도 마찬가지로 전체 보도의 93%에서 동성애를 옹호하는 관점을 보였다. 이 같은 보도의 기조는 2013년 중앙대학교 대학원 한윤화의 논문에서도 유사하게 드러난다. 다만 <인권보도준칙> 시행 이전 20년간의 연구결과로서 ‘국민일보’가 ‘긍정 18.2% / 중립 21.8% / 부정 60%’, 그리고 ‘한겨레’가 ‘긍정 67% / 중립 14.9% / 부정 18.1%’로 그 격차 폭은 다소 줄어든다.

이와 같이, 대한민국은 ‘인권보호’라는 이름으로 다수 국민의 정당한 알 권리가 국가에 의해 통제되는 듯 한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실제로 성소수자 정책이 매우 발달한 유럽국가들 중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나라들마저도 에이즈 감염 등을 이유로 동성애자들의 헌혈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이는 ‘인권’과 ‘보건’은 별개임을 시사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에이즈라는 질병 자체를 동성애와 연관 지을 수 없도록 국가가 통제하고 있으니, 이는 국민의 눈을 가리는 행위로 밖에 여겨지지 않는다. 국민의 ‘귀’와 ‘입’이 되어야 할 언론들마저도 동성애와 같은 민감한 사안만큼은 중립적인 공정성을 유지하기 어려워 보이는 것이 이 시대의 안타까운 현실이다. 국민 정서를 반영한 새로운 <인권보도준칙>의 개정이 필요해 보이는 이유이다.

해를 더해갈수록 동성애를 소재로 한 영화, 드라마, 뮤지컬, 연극, 음악 등의 문화콘텐츠가 더욱 자주 눈에 띈다. 늘어만 가는 동성애 소재 문화콘텐츠가 대한민국 사회에 그리고 다음 세대인 청소년들에게 어떠한 변화들을 가져오는지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 앞서 언급한 언론보도 환경의 변화 양상 중에서도 동성애 소재 문화콘텐츠에 대한 언론 평가 성향에 대해 집중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는데, 본 연구자는 이를 후속연구에 포함시키도록 하겠다.

다음 장에서는 동성애 소재 콘텐츠의 양적인 확산 현황을 조사해보았다. 다만 지면상의 이유로 대표적 미디어 콘텐츠인 영화와 드라마, 그리고 공연 콘텐츠인 뮤지컬과 연극으로 조사 범위를 제한하였다. 이를 통해 “성적 소수자가 잘못된 것이라는 뉘앙스를 담지 않도록 한다.”라고 규정한 <언론보도준칙>과 이에 따른 언론보도 환경의 변화가 동성애 소재 확산에 직접적 혹은 간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3. 동성애 소재 문화콘텐츠의 확산 현황

동성애가 우리 사회에 보다 쉽게 다가설 수 있게 된 계기는 우호적인 언론 보도뿐만이 아니다. 해마다 동성애를 소재로 한 영화, 드라마, 웹툰 등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가 대중들을 찾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는 매년 한국퀴어영화제를 열어 출판작을 공모하고 해마다 새롭게 선정된 국내 작품들을 대중에게 알리고 있다. 제18회를 맞이한 한국퀴어영화제는 2018년 7월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충무로 ‘대한극장’에서 진행 되었으며, 총 24개국이 참가하고 72개 작품이 상영되는 등 규모면에서도 커다란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동성애 영화, 드라마 등의 제작 소식을 접하는 많은 대중들은 그 선정성으로 인해 많은 우려의 뜻을 나타내고 있고, 실제 적지 않은 청소년들이 동성애 콘텐츠를 통해 여러 신체적, 정신적 영향을 받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오는 것을 볼 때, 이제는 보다 냉정하게 동성애 관련 콘텐츠의 현주소를 파악해보고, 확산과 규제를 조율할 필요성에 대해 진지한 사회적 담론이 요구된다 하겠다.

1) 동성애를 소재로 한 국내 영화와 드라마

언론보도와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현재까지 국내에서 제작된 동성애 소재 영화와 드라마들을 조사해 보았다. 동성애를 주된 소재로 삼았거나, 동성애자 역할의 배역이 포함된 콘텐츠들이다. 누락된 부분도 있겠지만, 동성애 관련 영화 및 드라마 콘텐츠의 제작 빈도와 소재의 흐름을 파악해보기 위해 표로 정리해 보았다. TV토크쇼, 예능프로그램, 시사프로그램 등의 방송 콘텐츠까지는 포함하지 않은 목록이며, 모든 방송물을 포함할 시 동성애 관련 미디어 콘텐츠의 집계는 보다 늘어날 것으로 판단된다.

제작년도 / 순번	제목	구분	등급	내용요약
1996	1 내일로 흐르는 강	영화	청소년 관람불가	게이 소재를 담은 영화
1999	1 여고괴담 두번째 이야기	영화	12세 이상	여고생 동성애와 공포영화를 혼합
	2 슬픈유혹	KBS드라마	정보 없음	동성애를 소재로 다룸
2001	1 와니와 준하	영화	15세 이상	퀴어적 요소가 일부 담긴 영화
	2 먼지 집프를 하다	영화	15세 이상	남자 교사와 남학생 사이의 동성애
2002	1 로드무비	영화	청소년 관람불가	게이커플과 한 여자와의 삼각관계
2003	1 불어라 봄바람	영화	15세 이상	퀴어적 요소가 일부 담긴 영화
2004	1 S 다이어리	영화	15세 이상	퀴어적 요소가 일부 담긴 영화
	2 순흔	영화	15세 이상	조선시대 선비들의 동성애
	3 동백꽃	영화	청소년 관람불가	게이 동성애를 담은 영화
2005	1 왕의 남자	영화	15세 이상	천만명이 넘는 관객동원 동성애 영화
	2 용서받지 못한 자	영화	15세 이상	군대 내 동성애를 소재로 한 영화

2006	1	후회하지 않아	영화	청소년 관람불가	게이 소재를 담은 영화
	2	천하장사 마돈나	영화	15세 이상	퀴어적 요소가 담긴 영화
	3	미스터 굿바이	KBS드라마	정보 없음	퀴어적 요소가 담긴 TV드라마
2007	1	가면	영화	청소년 관람불가	게이와 트랜스젠더 소재 영화
	2	굿바이데이	영화	15세 이상	청소년 동성애를 담은 영화
	3	커피프린스 1호점	MBC드라마	15세 이상	동성애 코드를 담은 드라마
	4	엽서	단편영화	15세 이상	게이 소재를 담은 영화
2008	1	소년, 소년을 만나다	단편영화	15세 이상	김조광수 감독 본인의 학창 시절
	2	뜨거운 것이 좋아	영화	15세 이상	레즈비언 소재를 담은 영화
	3	플라토닉 펀치 바나나	영화	15세 이상	퀴어적 요소가 일부 담긴 영화
	4	쌍화점	영화	청소년 관람불가	유명 배우들의 동성애 장면 흥행영화
	5	서양골동양과점 앤티크	영화	15세 이상	퀴어적 요소가 담긴 영화
2009	1	친구 사이?	단편영화	15세 이상	본격적인 게이 동성애 영화
	2	헬로우 마이 러브	영화	15세 이상	게이커플과 한 여자와의 삼각관계
2010	1	종로의 기적	영화	15세 이상	실제 4명의 게이를 담은 다큐영화
	2	인생은 아름다워	SBS드라마	15세 이상	총 63부작, 공중파에서 동성애를 다룸
	3	개인의 취향	MBC드라마	15세 이상	16부작, 게이를 미화하는 드라마
	4	사랑은 100℃	단편영화	청소년 관람불가	청각 장애인 이 사우나에서 동성애
2011	1	알이씨REC	영화	청소년 관람불가	5년차 게이커플의 삶을 담은 영화
	2	줄탁동시	영화	청소년 관람불가	탈북 소년과 모델 게이 소년의 만남
	3	창피해	영화	청소년 관람불가	미대 여교수와 모델 여학생의 동성애
	4	완벽한 남자에겐 남자가 있다	단편영화	정보 없음	게이 소재를 담은 영화
	5	클럽 빌리티스의 딸들	KBS드라마	정보 없음	여성 동성애를 정면으로 다룬 드라마
2012	1	졸업 여행	영화	12세 이상	레즈비언 소재를 담은 영화
	2	두 번의 결혼식과 한 번의 장례식	영화	15세 이상	게이 커플과 레즈비언 커플의 위장 결혼
	3	남쪽으로 간다	영화	청소년 관람불가	군 생활을 같이 한 선후임의 동성애
	4	백야	영화	청소년 관람불가	게이와 동성애자 폭력을 다룬 영화
	5	좋은 사람 생기면	단편영화	15세 이상	게이 동성애를 담은 영화
	6	지난 여름, 갑자기	영화	청소년 관람불가	남학생과 남자 선생님의 동성애
	7	댄싱퀸	영화	12세 이상	퀴어적 요소가 일부 담긴 영화
	8	그대 잠든 사이	단편영화	정보 없음	게이 소재를 담은 영화
	9	내가 같이 있어 줄게	단편영화	15세 이상	게이 동성애를 담은 영화
2013	1	퀴어영화 20	단편영화	청소년 관람불가	한 게이 소년의 자전적 드라마
	2	하룻밤	영화	청소년 관람불가	게이 소재를 담은 영화
	3	하이힐	영화	청소년 관람불가	트랜스젠더를 소재로 한 영화
	4	이것이 우리의 끝이다	영화	청소년 관람불가	여러 주인공 중 한 명이 동성애자

	5	당신이 몰랐던 것들	영화	15세 이상	게이 동성애를 담은 영화
2014	1	야간비행	영화	청소년 관람불가	고교 우등생과 폭력서클 학생의 관계
	2	원나잇 온리	영화	청소년 관람불가	고교생 게이와 성인 게이의 두 이야기
	3	썸[some]	영화	청소년 관람불가	게이 동성애를 담은 영화
	4	아! 개운해	단편영화	15세 이상	게이 소재를 담은 영화
	5	그린라이트	단편영화	청소년 관람불가	게이 동성애를 담은 영화
	6	어름밤	단편영화	청소년 관람불가	게이 동성애를 담은 영화
	7	애타는 마음	단편영화	15세 이상	택시기사와 20대 게이의 동성애
	8	캔디: 우리가 사랑한 소년의 이름	영화	청소년 관람불가	내성적인 게이 소년의 이야기
	9	끝말잇기	단편영화	15세 이상	게이 동성애를 담은 영화
	10	하프	영화	청소년 관람불가	퀴어적 소재를 담은 영화
2015	1	나비: 어른들의 일	영화	청소년 관람불가	한 남자가 호스트바에서 겪는 이야기
	2	수상한 언니들	영화	청소년 관람불가	레즈비언 소재를 담은 영화
	3	첫사랑	영화	청소년 관람불가	레즈비언과 양성애자 소재의 영화
	4	마이 페어 웨딩	영화	12세 이상	감독 본인의 실제 동성결혼을 다룸
	5	간신	영화	청소년 관람불가	여성간 성관계를 담은 극장 개봉영화
	6	더러버(총 14화)	M.net드라마	청소년 관람불가	네 커플의 이야기, 한 커플이 게이 커플
	7	대세는 백합	네이버 웹드라마	15세 이상	두 여고생의 동성애를 그린 청소년 드라마
	8	FMSM	단편영화	청소년 관람불가	게이 동성애를 담은 영화
	9	선암여고 탐정단	JTBC드라마	15세 이상	청소년물, 여고생 간의 키스장면이 논란
	10	아직 끝나지 않았다	단편영화	15세 이상	남학생과 남자 선생님의 동성애
	11	오픈	단편영화	15세 이상	게이 동성애 영화
2016	1	어느 여름날 밤에	영화	청소년 관람불가	탈북자 동성애 커플 사이의 갈등
	2	아가씨	영화	청소년 관람불가	레즈비언 소재를 담은 영화
	3	연애담	영화	청소년 관람불가	레즈비언 소재를 담은 영화
	4	이별을 받아들이는 다섯 단계	단편영화	정보 없음	여성 동성애를 그린 영화
	5	형이 돌아왔다	단편영화	청소년 관람불가	게이 동성애를 담은 영화
	6	불한당: 나쁜 놈들의 세상	영화	청소년 관람불가	퀴어적 요소가 포함된 범죄 액션 영화
	7	죽여주는 여자	영화	청소년 관람불가	트랜스젠더가 출연하는 영화
	8	안투라지	tvN드라마	15세 이상	퀴어적 요소가 일부 포함된 16부작
2017	1	문영	영화	15세 이상	양성애자 소재를 담은 영화
	2	우리 정말 헤어졌을까	단편영화	정보 없음	여성 동성애를 그린 영화
	3	돔	단편영화	청소년 관람불가	게이 동성애를 담은 영화
	4	돌아가는 길	단편영화	12세 이상	게이 소재를 담은 영화
	5	기울어진 여름	단편영화	정보 없음	게이 소재를 담은 영화
	6	메소드	영화	15세 이상	아이돌 스타의 동성애를 그린 영화
	7	꿈의 제인	영화	청소년 관람불가	레즈비언 소재를 담은 영화

	8	분장	영화	15세 이상	트랜스젠더를 소재로 한 영화
2018	1	환절기	영화	15세 이상	동성애자 아들을 둔 엄마의 시각
	2	퀴어영화 뷰티풀	영화	청소년 관람불가	게이 소재를 담은 로맨틱 코미디
	3	어느 일요일	웹영화	정보 없음	여성 동성애를 그린 영화
	4	열대야	영화	15세 이상	핑크머니상을 수상한 게이 영화

<표2. 동성애를 소재로 한 국내 영화와 드라마>

2) 동성애를 소재로 한 국내의 대표적 뮤지컬과 연극

다음은 국내의 대표적인 동성애 소재 뮤지컬과 연극을 조사해보았다. 뮤지컬과 연극의 특성상 100석 이하 소극장에서의 소규모 초연 공연 및 재공연이 빈번하다. 이를 일일이 조사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언론매체에 보도 자료와 관람평, 홍보 기사 등이 노출된 기록이 있는 뮤지컬과 연극으로만 제한하여 공연 현황을 조사해보았다. 아래 표에 나열된 뮤지컬과 연극들은 대부분 큰 흥행을 이뤄 대중화에 성공한 동성애 공연물들이다.

제작년도 / 순번	제목	구분	등급	내용요약
2000	1 렌트	뮤지컬	만 13세 이상	동성애와 에이즈를 다룸. 토니상 4개 수상
	2 이(爾)	연극	전체 관람가	왕과 광대의 동성애 관계, 동아연극상 수상
2002	1 렌트(재공연)	뮤지컬	만 13세 이상	초연과 동일
2006	1 뷰티풀 선데이	연극	만 12세 이상	동성애, 에이즈에 걸린 게이 소재
2007	1 쓰릴미	뮤지컬	만 15세 이상	동성애, 유괴, 살인 이야기를 포함
2008	1 쓰릴미(재공연)	뮤지컬	만 15세 이상	초연과 동일
	2 헤드워	뮤지컬	만 15세 이상	부정당하고 버려진 트랜스젠더 이야기
2009	1 쓰릴미(재공연)	뮤지컬	만 15세 이상	초연과 동일
	2 헤드워(재공연)	뮤지컬	만 15세 이상	초연과 동일
	3 자나, 돈트!	뮤지컬	만 14세 이상	남남커플, 여여커플이 정상인 고교 이야기
	4 스프링 어웨이크닝	뮤지컬	만 17세 이상	청소년기의 성관계 및 동성애가 담김
2010	1 쓰릴미(재공연)	뮤지컬	만 15세 이상	초연과 동일
	2 헤드워(재공연)	뮤지컬	만 15세 이상	초연과 동일
	3 스프링 어웨이크닝(재공연)	뮤지컬	만 17세 이상	초연과 동일
	4 이(爾, 재공연)	연극	전체 관람가	초연과 동일
	5 뷰티풀 선데이(재공연)	연극	만 12세 이상	초연과 동일
2012	1 쓰릴미(재공연)	뮤지컬	만 15세 이상	초연과 동일
	2 헤드워(재공연)	뮤지컬	만 15세 이상	초연과 동일
	3 풍월주	뮤지컬	만 13세 이상	남자 기생 사이의 사랑, CJ E&M제작 흥행1위
	4 라카지	뮤지컬	만 7세 이상	게이바 야장남자들의 이야기, LG아트센터 대작

	5	게이 결혼식(웨딩스캔들)	연극	만 13세 이상	거짓 동성 결혼생활을 다룸
	6	M. Butterfly	연극	만 16세 이상	세종문화회관에서 공연, 국경을 넘은 동성애
	7	레슬링 시즌	연극	만 13세 이상	동성애 코드가 가미된 청소년 연극
2013	1	쓰릴미(재공연)	뮤지컬	만 15세 이상	초연과 동일
	2	헤드워(재공연)	뮤지컬	만 15세 이상	초연과 동일
	3	풍월주(재공연)	뮤지컬	만 13세 이상	초연과 동일
	4	헤이, 자나!	뮤지컬	만 13세 이상	현대아트홀에서 공연, '자나돈트' 각색
	5	번지 점프를 하다	뮤지컬	만 7세 이상	선생님인 유부남 게이와의 사랑
	6	레슬링 시즌(재공연)	연극	만 13세 이상	초연과 동일
2014	1	쓰릴미(재공연)	뮤지컬	만 15세 이상	초연과 동일
	2	헤드워(재공연)	뮤지컬	만 15세 이상	초연과 동일
	3	풍월주(재공연)	뮤지컬	만 13세 이상	초연과 동일
	4	라카지(재공연)	뮤지컬	만 7세 이상	연극
	5	프리실라	뮤지컬	만 13세 이상	트랜스젠더, 게이 댄서들의 여정
	6	킹키부츠	뮤지컬	만 7세 이상	CJ E&M 제작, 여장남자가 주인공
	7	M. Butterfly(재공연)	연극	만 16세 이상	초연과 동일
	8	레슬링 시즌(재공연)	연극	만 13세 이상	초연과 동일
	9	수탉들의 싸움	연극	만 18세 이상	남성 동성애자들과 부모의 갈등
	10	프라이드	연극	만 17세 이상	객석점유율 90%를 기록하는 등 인기
	11	BENT	연극	만 16세 이상	영국 국립극장이 선정한 20세기 최고 연극
2015	1	쓰릴미(재공연)	뮤지컬	만 15세 이상	초연과 동일
	2	헤드워(재공연)	뮤지컬	만 15세 이상	초연과 동일
	3	풍월주(재공연)	뮤지컬	만 13세 이상	초연과 동일
	4	라카지(재공연)	뮤지컬	만 7세 이상	초연과 동일
	5	킹키부츠(재공연)	뮤지컬	만 7세 이상	초연과 동일
	6	프라이드	뮤지컬	만 17세 이상	과거와 현재의 성적 가치관을 비교
	7	베어 더 뮤지컬	뮤지컬	만 15세 이상	가톨릭계 고등학교 청소년들의 동성애
	8	M. Butterfly(재공연)	연극	만 16세 이상	초연과 동일
	9	프라이드(재공연)	연극	만 17세 이상	초연과 동일
	10	BENT(재공연)	연극	만 16세 이상	초연과 동일
	11	스탑 키스	연극	만 17세 이상	레즈비언의 사랑을 다룬 연극
2016	1	쓰릴미(재공연)	뮤지컬	만 15세 이상	초연과 동일
	2	헤드워(재공연)	뮤지컬	만 15세 이상	초연과 동일
	3	킹키부츠(재공연)	뮤지컬	만 7세 이상	초연과 동일
	4	베어 더 뮤지컬(재공연)	뮤지컬	만 15세 이상	초연과 동일
	5	까사발렌티나	연극	만 12세 이상	토니어워드 3개 부문 후보, 남자 최우수 연기상
2017	1	쓰릴미(재공연)	뮤지컬	만 15세 이상	초연과 동일

	2	헤드윅(재공연)	뮤지컬	만 15세 이상	초연과 동일
	3	프라이드(재공연)	뮤지컬	만 17세 이상	초연과 동일
	4	베어 더 뮤지컬(재공연)	뮤지컬	만 15세 이상	초연과 동일
	5	M. Butterfly(재공연)	연극	만 16세 이상	초연과 동일
	6	수탉들의 싸움(재공연)	연극	만 18세 이상	초연과 동일
	7	좋아하고 있어	연극	만 13세 이상	고등학교 밴드부 여학생들의 동성애
	8	XXL 레오타드 안나수이 손겨울	연극	만 13세 이상	여성성을 가졌다는 이유로 공격받는 고2 남학생의 이야기
	2018	1	헤드윅(재공연)	뮤지컬	만 15세 이상
2		풍월주(재공연)	뮤지컬	만 13세 이상	초연과 동일
3		번지 점프를 하다(재공연)	뮤지컬	만 7세 이상	초연과 동일
4		킹키부츠(재공연)	뮤지컬	만 7세 이상	초연과 동일
5		베어 더 뮤지컬(재공연)	뮤지컬	만 15세 이상	초연과 동일
6		BENT(재공연)	연극	만 16세 이상	초연과 동일
7		거미여인의 키스	연극	만 16세 이상	이념이 다른 두 감옥 수감자들의 동성애
8		우리는 이 도시에 함께 도착했다	연극	만 15세 이상	페미니즘과 성평등을 담은 연극
9		이반검열	연극	만 13세 이상	학교에서 벌어진 동성애자 색출작업을 소재
10		네버 더 시너	연극	만 12세 이상	유괴살인 사건 소재, 동성애 캐릭터 등장

<표3. 동성애를 소재로 한 국내의 대표적 뮤지컬과 연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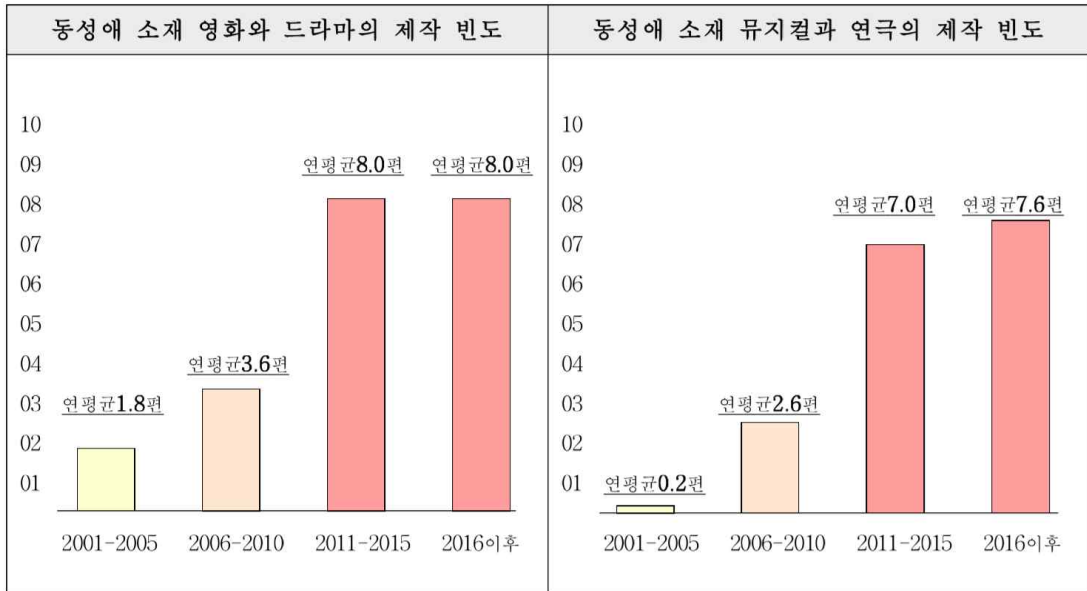
위와 같이 조사된 동성애 소재 영화와 드라마, 뮤지컬과 연극의 내역을 바탕으로 <인권보도준칙>의 시행 이전과 이후, 동성애 소재 문화콘텐츠의 제작 빈도가 어떠한 변화를 보이는지 아래에 확산 현황을 표로 정리해 보았다. <인권보도준칙>이 제정된 2011년을 기준으로 삼기 위해 2001년부터 5년 단위로 기간을 나누어 연평균 제작 빈도를 산출해보았다.

<표4. 동성애를 소재로 한 국내의 대표적 뮤지컬과 연극>

동성애 소재 영화와 드라마의 경우,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년간 총 9편으로 연간 평균 1.8편이 제작,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은 총 18편으로 연간 평균 3.6편 제작, 그리고 <인권보도준칙>이 제정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은 총 40편으로 급증하여 연간 평균 8.0편이 제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뮤지컬과 연극의 경우 역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년간 총 1편으로 연간 평균 0.2편 제작,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은 총 13편으로 연간 평균 2.6편 제작, 그리고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은 총 35편으로 급증하여 연간 평균 7.0편이 제작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처럼 <인권보도준칙>이 제정된 2011년을 기점으로 동성애 문화콘텐츠의 제작 빈도가 급상승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언론의 부정적인 평가로부터 해방된 자유로운 미디어 환경으로 인해 많은 제작자들이 동성애 코드를 과감하고 거침없이 영상에 담아, 그리고 무대연출을 통해 배급할 수 있게 된



것으로 사료된다.

4. 맺으며

앞서 조사한 동성애 소재 영상 콘텐츠 목록에도 다수 담겨있지만, 온 가족이 함께 시청하는 공중과 TV 드라마에서 조차 동성애 장면을 내보내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었던 적이 많다. 그중 한 예로 2015년에 JTBC에서 방영한 ‘선암여고 탐정단’을 들 수 있는데, 15세 청소년드라마에서 제 11회와 12회, 2회에 걸쳐 ‘여고생간 키스신 및 포옹 장면’을 내보내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당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트’는 “최근 방송심의위원회의 동성애 키스신 제재 검토, 당신의 의견은?”이란 주제로 온라인 설문을 진행했고, 그 결과 참가자의 88%(6만9861명)가 “청소년 동성애 조장 우려로 방송사를 제재해야 한다”고 답했고, 단지 11%(9019명)만이 “표현의 자유와 다양성 인정 차원에서 제재해선 안된다”고 응답했다⁴⁾. 이처럼 우리 사회는 동성애를 접할 때,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끼칠 좋지 않은 영향에 대해 먼저 걱정하고 마음조려 했다.

뮤지컬과 연극 등 공연예술도 마찬가지이다. <표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조사된 대부분의 동성애 소재 뮤지컬과 연극은 ‘청소년 관람가’이다. 심지어 전체 목록의 44%인 32개 공연물이 ‘초등학생 관람가’로 나타났다. 세종문화회관에서 공연된 뮤지컬 <자나, 돈트>의 경우, 동성간의 사랑이 일반적이고 이성간의 사랑이 평범하지 않은 한 고등학교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남-남, 여-여 고등학생 커플들의 사랑을 당연하게 그려 세상에 대한 성개념을 뒤집는다. 2015년 초연되어 해마다 재공연이 이루어지고 있는 뮤지컬 <베어 더 뮤지컬> 역시 보수적인 가톨릭계 고등학교에서 벌어지는 청소년들의 동성애를 다룬 뮤지컬이다. 고등학생 게이 커플의 동성애뿐 아니라 혼전임신까지 다뤄 청소년의 성적인 성장통을 극단적으로 묘사하는 등 청소년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7년 연극 <좋아하고

4) <http://hopekorea.net/m/page/detail.html?no=459>

있어>도 청소년 동성애를 다룬 연극이다. 혼자 자취하는 여자고등학교 밴드 선후배간의 동성연애를 다뤘는데, 위 공연들은 모두 ‘중학생 관람가’이다. <좋아하고 있어>는 ‘초등학생 관람가’이다.

동성애가 청소년에게 끼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세계 각지에서 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 이 또한 후속 연구를 통해 구체적으로 다루도록 하겠다.

이렇듯 <인권보도준칙>이 성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무비판의 관용’이라는 특권이 주어져 더 많은 동성애 콘텐츠를 자유롭게 생산해낼 수 있게 되는 기폭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동성애 콘텐츠가 동성애에 대한 인정효과를 가져온다는 다양한 연구가 보고되어 있고, 이는 대중문화 콘텐츠가 얼마나 큰 파급력을 가지고 있는지 입증하는 것이다. 언론과 미디어가 공정성과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인권’ 프레임에만 갇혀 동성애에 대한 ‘미화’된 면만을 강조한다면, 성적 지향에 대한 편향된 사고를 갖게 하고 동성애 확산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특히 아직 정신적, 육체적 성장 과정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성정체성과 자신의 성행위에 대한 윤리의식, 균형 잡힌 사고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언론과 문화콘텐츠 종사자들의 책임감있는 행동이 필요하며, 아울러 이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언론보도 환경의 개선도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문헌

1. 학술지 및 학위논문

- 이혜미, 유승호, 「문화콘텐츠의 인정 효과 -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변화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한국콘텐츠학회 18(7), 2018.
- 전민경, 전재희, 황선아, 「고등학생의 동성애에 대한 인식 및 태도」,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7(10), 2017.
- 전연희, 「퀴어연극에 나타난 전통의 수용과 도전」, 『현대영미드라마』, Vol.17 No.2, 현대영미드라마학회, 2004.
- 박수진, 『성소수자의 소수자스트레스가 자살사고에 미치는 영향 : 정서적 고립의 매개효과와 자기수용의 조절된 매개효과 분석을 중심으로』, 한신대학교 정신분석대학원, 석사논문, 2018. 2.
- 정혜윤, 『일반인의 성소수자 인식에 미디어가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논문 2014. 8.
- 한윤화, 『동성애 관련 뉴스 프레임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신문방송학과, 석사논문, 2013. 2.

2. 인터넷 사이트

- <http://www.news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220744>
- <http://www.hani.co.kr/arti/culture/music/815475.html>
- <http://www.newspim.com/news/view/20180207000199>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40131_0012693161
- <https://news.joins.com/article/15772196>
- 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html?p_num=7
- <http://weekly.hankooki.com/lpage/sisa/201201/wk20120120191153121390.htm>
- <http://www.christiantoday.co.kr/news/274319>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40408_0012842158
-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6640>
- <http://www.christiantoday.co.kr/news/314462>
- <http://hopekorea.net/m/page/detail.html?no=459>
- <http://www.future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638>